

끝까지 '호랑이 투혼' 보여달라

총체적 난국에 빠진 KIA의 무기력한 행보에 팬들의 실망이 크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홈구장에서 벌어진 롯데 자이언츠와의 3연전에서 완패를 당하며 사설상 4강 까락에서 밀려난 형국이다.

40일만에 4위로 치고 올라간 삼성 라이온즈와는 8일 현재 5개임차, 끝없는 추락으로 5위까지 내려앉은 한화 이글스와도 4.5개임차까지 벌어졌다. 투·타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4강의 꿈이 멀어진 KIA는 이번 주 1·2위 팀과의 힘겨운 6연전을 벌인다.

9일 홈에서 시작되는 주중 3연전에서는 1위 SK와 이브스와 맞붙는다. 롯데의 불타는 타선에 3연패의 수모를 당했던 KIA에게는 '산 넘어 산'이다.

올 시즌 SK와의 상대전적은 2승 10패로 전체 8팀의 팀간 승률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KIA는 올 시즌 주요 경기마다 SK에 팔복을 잡아면서 4강의 꿈을 저지당했다고 할 만큼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첫 경기부터 험난하다.

팀의 연패 탈출과 SK와의 승률 만회의 임무를 위해 이범석이 마운드에 오르게 되지만 SK도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김광현으로 맞불을 놓았다. 양팀의 순위 행보처럼 최근 두 선수의 희비도 엇갈렸다.

지난 4일 삼성전에서 구원으로 등판했

■ KIA 금주의 프로야구



9~11일·광주 12~14일·점실

SK(1위)·두산(2위) 상대

힘겨운 6연전 예상

이범석은 삼성의 양준혁에게 통한의 결승 홈런을 얻어맞으면서 패전투수의 명예를 떴다. 반면 김광현은 지난 3일 우리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7과 3분의 1이닝동안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이날 승리로 김광현은 윤석민과 함께 다시 공동 1위(13승)에 올라섰고, 김성근 감독에게는 1천승을 선물했었다.

마운드 줄부상 속에 최후의 카드 이범석이 무너진다면 남은 경기도 장담할 수 없다. 부동의 에이스 윤석민은 지난주 올림픽의 피로 때문에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무너졌다. 디아즈도 경기 도중 오른쪽

◇프로야구 중간순위 (8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승률	개임차	연속
1	SK	68	35	0.660	-	1패
2	두산	59	45	0.567	9.5	2승
3	롯데	59	47	0.557	10.5	4승
4	삼성	57	54	0.514	15.0	2승
5	한화	58	56	0.509	15.5	2패
6	KIA	51	58	0.468	20.0	4패
7	히어로즈	41	64	0.390	28.0	2패
8	LG	38	72	0.345	33.5	1승

팔꿈치에 염증을 호소했고, 조범현 감독이 후반기 기대주로 꼽았던 임준혁과 양현종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지난주 마운드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기대를 모았던 데이비스도 마인드 컨트롤의 실패와 주자 견제 등의 문제로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마운드의 힘'으로 버티던 KIA는 궁지에 몰렸다.

헤어날 길 없는 타선의 단순한 공격도 높은 마운드를 보유한 SK와 두산 공략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 KIA는 12경기에서 32점을 뽑는데 그쳐 평균 2.67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주말 3연전에서 롯데가 22득점의 맹타를 휘두르는 동안 KIA는 5득점의 반타에 허덕였다.

남은 경기는 고작 17개임. 그러나 팬들은 마지막까지 KIA가 투혼을 발휘해 '기적'을 만들어 주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hui.co.kr

벽산건설·경남개발공사 오늘 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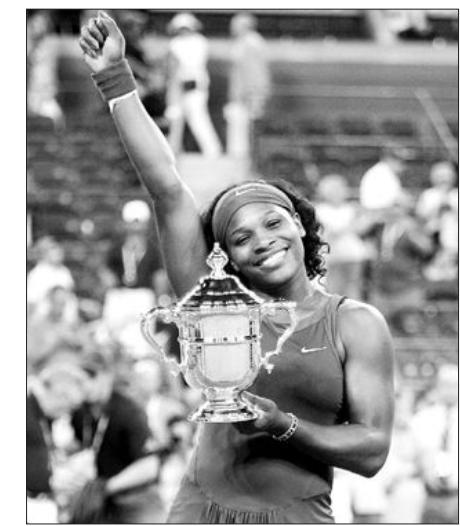
전국실업핸드볼 여자부

벽산건설과 경남개발공사가 2008 다이소 배 전국실업핸드볼대회 여자부 정상을 다투게 됐다.

임영철 여자핸드볼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벽산건설은 8일 오후 무안 목포대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준결승에서 부산시설 관리공단을 36-27, 9점 차로 대파했다.

벽산건설에서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건 대표 선수들의 맹활약이 돋보였다. 무안 백제고 출신 김은아는 10골을 몰아치며 팔팔 날았고 박정희가 8골, 문필희가 7골을 각각 뽐내며 승리를 이끌었다.

앞서 다른 준결승에서는 경남개발공사가 정소영이 11골을 몰아치는 맹활약에 힘입어 정지혜와 유현지(이상 5골)가 버틴 삼척시청을 29-21, 8점 차로 대파했다.



서리나 월리엄스 우승

US오픈테니스 여 단식

서리나 월리엄스(3위·미국·사진)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테니스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월리엄스는 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 플러싱 메도 별리 킹 카니언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14일째 여자단식 결승에서 엘레나 앙코비치(2위·세르비아)를 2-0(6-4 7-5)으로 꺾었다. 1999년과 2002년 이 대회 정상을 차지해 올랐던 월리엄스는 6년만에 US오픈 정상을 탈환하며 우승 상금 150만 달러(한화 약 16억3천만원)를 획득했다. 개인 통산 9번째 그랜드슬램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한 월리엄스는 9일 발표될 세계 랭킹에서 1위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됐다.

1세트에서 게임스코어 5-2로 앞서던 월리엄스는 앙코비치에게 연달아 두 게임을 뺏기며 5-4까지 훑쳤으나 이어진 앙코비치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기선을 잡았다. 2세트에서는 반대로 게임스코어 3-5로 뒤지다가 내리 네 게임을 따내며 승부를 뒤집었다.

특히 3-5로 뒤진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0-40까지 끌려가 3세트로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2세트에서 경기를 끝냈다. 이번 대회 7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열린 남자단식 결승에서는 앤디 머레이(6위·영국)가 세계 랭킹 1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을 3-1로 물리치고 9일 '테니스 황제'로z 페더러(2위·스위스)와 우승을 놓고 다투게 됐다.

/연합뉴스

추신수 3할4타



미국프로야구
의 유일한 한국
인 타자 '주추 트
레이' 추신수

캔자스시티전 2안타 추가

정확히 타율 3할대 올라

후반기 맹타…주전도 굳혀

0.295와 3홈런 22타점으로 가능성을 보

인 우왕주였지만 지난해 주로 마이너리그에서 뛰며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데다 9월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 훈련을 막 졸업한 상태였기 때문.

그러나 추신수는 지난 6월 뒤늦게 합류한 메이저리그에 무대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꽂고우고 있다. 뒤늦은 합류

로 75경기에 나서는 데 그쳐 규정타석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3할 타율과 함께 출루율 0.395, 장타율 0.532를 기록하면서 정상급 타자의 지표인 .300-.400-.500(3할 타율-4할 출루율-5할 장타율)에 균접했다.

100타석 이상 들어선 클리블랜드 타자 가운데 추신수보다 타율, 출루율, 장타율이 높은 이는 없다.

홀인 9개를 기록한 장타력과 도루(4개) 능력, 강한 외야 송구 능력 등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타점은 45개를 올려 최희섭(KIA)가 보유한 한국인 타자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에 1개 차로 다가섰다.

/연합뉴스

8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스필드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풋볼(NFL) 2008 정규 시즌 개막전에서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피츠버그 스틸러스·왼쪽)가 휴斯顿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터치다운을 위해 돌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드 터치다운 2개

미 프로풋볼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2·피츠버그 스틸러스)가 2008 정규

시즌 개막전에서 터치다운 2개를 성공하고 산뜻하게 출발했다. 와이드 리시버 워드는 8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스필드에서 벌어진 휴斯顿 텍사스와 정규 시즌 1주차 경기에서 6번 패스를 받아 76야드를 전진했고 터치다운 2개를 각별시키며 38-17 승리를 이끌었다.

9일(화)

▲08/09 NFL〈미네소타 : 그린베이〉

(07 : 50·SBS스포츠)

▲2008 메이저리그〈LA다저스 : 샌디에이고〉(10 : 55·Xports)

▲2008 프로야구〈한화 : LG〉(18 : 10·SBS스포츠)〈두산 : 삼성〉(18 : 20·KBS N SPORTS)〈우리 : 롯데〉(18 : 20·Xports)〈SK : KIA〉(18 : 30·MBC ESPN)〉

금당부동산

☎ (062)223-7400 향 016-632-5659

(총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네마 증근)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주자

•송정동 나대지 1085㎡(330평) 창고, 대세대동 적립 평당 65만원(2억2천)

•니주시 신포면 신제리 관리지역 12800평 복지시설용지 적립 2억2천

•전성군 삼계면 서천주거지 989평 1억원

•금당군 대내면 고속도로 대내디널부근 관리지역 일야 5455평 농지지, 종교시설, 종교시설 적립 2억 3천

•동구 소래동 2차지도로 185 건평 624 전세 6400만 원 월 5000평 매도 9억3천 평 매도 1억5천

•대인동 강주은행 건물 건너 대지 168㎡ 4층 건 156평 공시지가 1억 3300 평 매도 3억7천

•충정로 5기 62평 공시지가 4억8천 매도 3억7천

•북구 우신동 건립 건물증의 4층 일부 95평. 현재는 드워시 실온증증 입 직면 매입가는 4억7500만 원 담보 2억 매도 3억2천

•신인동 삼법지 93평 공시지 3억2천 매도 2억

감정가이하

•대인동 대지 100평 43평67 노래방·PC방 원룸·

•동구 소래동 18평 주택 45평 범인점 893평

•전성읍 허가난곳 나주시 삼동 1250평 건평 500평 허가난곳 8억2천

•금당군 대내면 고속도로 대내디널부근 관리지역 일야 5455평 농지지, 종교시설, 종교시설 적립 2억 3천

•동구 소래동 2차지도로 143평 공시지가 1억2천

•전성읍 허가난곳 나주시 삼동 1250평 건평 500평 허가난곳 8억2천

•금당군 대내면 고속도로 대내디널부근 관리지역 일야 5455평 농지지, 종교시설, 종교시설 적립 2억 3천

•금당군 대내면 고속도로 대내디널부근 관리지역 일야 5455평 농지지, 종교시설, 종교시설 적립 2억 3천

•금당군 대내면 고속도로 대내디널부근 관리지역 일야 5455평 농지지, 종교시설, 종교시설 적립 2억 3천

•금당군 대내면 고속도로 대내디널부근 관리지역 일야 5455평 농지지, 종교시설, 종교시설 적립 2억 3천

•금당군 대내면 고속도로 대내디널부근 관리지역 일야 5455평